

대순진리회의 교리 체계와 사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이 경 원

(한국·대진대학교)

《요 약》

The religious doctrine of the Daesunjinlihoe is composed of a next's 4 kinds. The first item is the object of worship. This is the starting point to understand one religion. The second is the main thesis. This is the intellectual expression of original religious experience of the founder of religion. The third is the creed. This regulates a faith practice of the association, being the faith confession. The fourth item is the purpose. The purpose is the ultimate state which the religion association intends to. This has the value as worldwide idea, including the personality completion of the individual.

There are three kind feature of religious doctrine in Daesunjinlihoe. They are as follows. The first thing is the intellectual expression of the religious experience and it is the original of the founder. The second is the critical succession and transfiguration of traditional thought. The third is that it displays a future-oriented and new thought.

I . 머리말

올해(2003)로 대순(大巡) 133년째를 맞는 대순종단은 그 신앙의 역사만큼이나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기성종교로 인식되는 유교·불교·기독교 등의 교세와 비교해 볼 때, 신생종교로서의 대순종단이 단일 종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늘날 익히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었다.¹⁾ 더욱이 기성종교의 창시자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1) '종단 대순진리회'로서의 공식명칭을 사용하여 종교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9년이다.(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진리회 요람》, 13쪽) 1997년 12월 31일자 도세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953,483 가구의 도인이 있으며, 1998년 12월 31일 현재 회관 회실 및 포덕소는 전국 1,360 여개소에 이르고 있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종단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9, 239쪽 도표참조)

입에 반해 대순진리회는 순수 한국인을 교조로 하고 한국역사를 발판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는 점에서 고유 신앙의 가치를 드높이는 측면도 있다. 1969년 새로운 종단의 창설 이래 실질적으로 따져 30여년의 종교 활동 역사에서 그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종단창설자의 탁월한 영도력과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잘 부합된 결과라는데 그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교리사상(이하 대순사상)이 한국종교사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신(흥)종교에 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²⁾ 그 개념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는 한국종교사에서 신종교는 이제 빼 놓을 수 없는 일정한 궤도 속에 놓여진 만큼,³⁾ 대순사상에 관한 연구도 이에 박차를 가하게 되어 근 10년을 돌아봄에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존의 학계에서 흔히 ‘증산사상(甞山思想)’ ‘증산교학(甞山敎學)’등으로 불리어 지던 것과는 달리 일단 대순사상이라고 하면 ‘종단 대순진리회’라고 하는 특정교단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그 텍스트 또한 종단 간행 경전인 《전경(典經)》(1974년 초판)을 근거로 하는 교학사상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학위논문 및 논총, 단행본의 발간 등은 학계를 향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⁴⁾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대순진리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

2) ‘신종교’라는 용어의 정의는 다분히 작업가설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지만, 비교적 짧은 시기에 발생한 종교운동에 하나의 정체성을 부과하고자 한 노력에서 붙여진 것으로 본다. 일제치하에서 ‘유사종교(類似宗教)’로 오인받기도 하고 해방이후 민족종교, 신흥종교, 민중종교 등으로 불리어지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신종교라는 용어가 가장 학술적이고 객관적인 용어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윤승용, <신종교와 신종교학>, 한국신종교학회 창립기념강연, 1999. 3.27 참조) 한국 종교사의 연구 정리에 있어 신종교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사상적 탐구의 가치를 실감하게 한다.(한국종교학회 편, <해방후 50년 한국종교연구사>, 창, 1997.(여기서는 신종교로 분류되어 있다) 김성례 외, <한국종교문화연구100년>, 청년사, 1999.(여기서는 민족종교로 분류되어 있다) 등을 참조할 것)

3) 한국의 종교관련 학회에서는 신종교에 관한 연구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그 학문적 심화와 정체성확보에 노력해 왔다. 대표적으로 1968년 창립된 한국종교사학회에서는 고유 신앙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신종교 연구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한국종교학회에서는 1970년 창립된 이래 신종교분과를 통해 그 학문적 정체성 탐구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1999년 3월에 창립된 한국신종교학회(회장 황선명)에서는 한국의 신종교에 관한 독립된 학문의 탄생을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각 교단의 교리적 입장과 학문적 접근을 통해 신종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매년 2회씩 《신종교연구(新宗教研究)》 학회지를 발간하여 2003년 현재 8집에 이르고 있다.

4) 석·박사학위논문으로서는 대략 20편 정도이며, 논문집으로서는 《대순사상의 현대적 이해》(1983), 《대순논집》(1992), 《대순사상논총》 총 15집(1996-2002) 등이 있고, 기타 단행본으로는 《대순종교사상》(1976)을 비롯하여 약 10여권에 이르고 있다.(자세한 책 소개는 지면관계상 생략함)

해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영역에서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⁵⁾ 첫째는 신앙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신앙대상이라 함은 종교경험의 외적근거로서 궁극적 실재이면서 보편적 의미의 유일신 또는 성(聖)스러움 그 자체를 가리킨다. 종교를 ‘절대적인 신념체계’로 정의내리는 한에서 이것은 하나의 종교를 탄생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신앙적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으로 종지(宗旨)에 관한 이해이다. 교조의 고유한 종교체험에 따른 그 지적표현으로서의 종교사상은 이러한 종지에 의해서 압축되고 천명(闡明)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의 신관, 인간관, 세계관 등에 관한 이해는 모두 이러한 종지를 근간으로 하여 해석될 수 있는 사상체계임을 알 수 있다. 셋째는 신조에 관한 것으로 신앙적 실천을 규정하는 사항이다. 이는 믿음을 전제로 한 공동체의 결속을 가져다주며 하나의 조직이 갖추어짐으로써 요구되는 규약과 권징(勸懲)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신조가 있음으로 해서 종단은 그 종교적 교리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고 수도(修道)생활에 있어서의 사사(私邪)로운 부분을 막아낼 수 있는 공적 표준으로서의 방패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목적에 관한 명시이다. 이 목적은 종교공동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경지로서 개인의 인격완성을 포함한 대 사회적이고 세계적인 이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목적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종교인은 현실의 고통을 감내함과 동시에 미래의 약속된 보상을 위해 보다 열정어린 수도생활에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영역을 범주로 하여 대순진리회 교리를 살펴볼 때 각각의 영역이 지니는 사상적 내용과 그 특징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개별영역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의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확대해석을 통한 일반화도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상적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언제나 대순진리의 신앙이 토대가 되고 있는 만큼 그 신앙을 바르게 깨우치고 교화해 나가는 선상에서 모든 연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⁶⁾ 또 하나의 문제는 교리개요가 지니고 있는 사상적 특질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하나의 종교적 진리가 출현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주된 관련이 있다. 대순진리가 출현할 당시의 시·공간적 상황은 19세기 말엽의 조선 사회였으므로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과 사고방식을 비판적으로 계승 극복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말하자면 교리개요는 그 자체로 사상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전반적인 선상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이에 대한 분류근거는 《진경》 교운 2장 32절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을 축년에 구태인 도창현(舊泰仁道昌峴)에 도장이 이룩되니 이 때 도주께서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시고 상제를 구천 응원 뇌성 보화 천존 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 봉안하고 종지(宗旨) 및 신조(信條)와 목적(目的)을 정하셨도다...」 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신앙대상으로서의 구천상제와 종지, 신조, 목적 등의 4가지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6)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에서는 모든 교화에 있어서 대순진리의 신앙을 바르게 깨쳐나가도록 훈시하고 있다.(《대순지침》, 13-19쪽 참조)

본 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먼저 대순진리회 교리가 어떠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그러한 교리개요가 지니는 사상적 특질에 대하여 차례로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교리개요의 사상적 구조

1. 신앙의 대상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는 먼저 구한말의 종교가인 강증산(姜甌山; 1871-1909)이 지닌 신격(神格)과 그 속성에 이르기까지의 설명을 참고로 할 수 있다. 즉 《대순진리회요람》에 의하면,

무상(無上)한 지혜와 무변(無邊)의 덕화와 위대한 권능의 소유주이시며 역사적 대 종교가이신 강증산 성사(聖師)께옵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시고 천하를 대순(大巡)하시다가 인세에 대강(大降)하사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시고 후천의 무궁한 선경(仙境)의 운로를 열어 지상천국을 건설하고 비겁(否劫)에 쌓인 신명과 재겁(災劫)에 빠진 세계창생을 널리 건지시려고 순회 주유(周遊)하시며 대공사(大公事)를 행하시니...7)

라고 하여 역사적 인물로 탄생한 증산(甌山)이 최고신격의 소유자임을 밝히고 있다. 《대순지침》에서도 「강세하신 강증산(姜甌山)이 구천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주어야 한다.」⁸⁾라고 하여 강증산이 구천상제로서 신앙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로써 인간 증산의 행적은 모두 절대가치를 지니는 신성한 것이 되며, 그의 존재는 또한 최고신의 권화(權化)에 의한 화현으로서 신의 역사(役事)를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 지고 있다.

대순진리회 교리를 구성하는 주요한 단면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신앙은 당시의 민중들이 고대했던 구세주에 대한 갈망과 증산이 행했던 위대한 기행이적에의 절대적인 신뢰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라 하겠다. 증산은 그의 생애에 걸쳐서 선천과 후천의 갈림길이 되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으며 그 결과 세계는 무궁한 도화낙원의 미래를 약속받게 되었다. 증산은 말하기를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

7)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 8쪽.

8)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 17쪽.

하라'」⁹⁾고 하여 천지공사는 오직 최고신 상제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대역사임을 선포한 바 있다. 천지우주의 새로운 창조 작업으로도 여겨지는 이러한 역사는 인간 몸으로 탄강한 증산을 최고신의 화현(化現)으로 신앙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며, 증산의 사후에도 하나의 새로운 신앙으로 자리 잡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대순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창도주에 해당하는 조정산(趙鼎山; 1895~1958)은 이러한 강증산의 대순진리에 대하여 고유한 득도체험(1917년 2월10일)을 함으로써 증산의 행적에 대한 공식적인 신앙체계를 세웠던 분으로 기록된다. 1925년에 원시종단인 무극도를 창도한 도주는 새롭게 공포된 교리에서 강세하신 강증산을 구천상제로 봉안하였다. 다시 말해서 증산의 탄생은 곧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의 강세(降世)이며, 증산의 생애는 상제의 삼계(三界)대순(大巡)을 위한 역사적 과정이고, 증산의 죽음은 상계(上界)의 보화천존(普化天尊) 제위(帝位)에 임어(臨御)하기 위한 화천(化天)에 다름 아닌 것이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증산이 지닌 구체적인 신격은 현대 대순진리회 종단에 이르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로 확정되어 나타난다. 이 호칭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인간 강증산을 최고신 상제와 동일시하여 보고자 하는데 있다. 호칭이 뜻하는 바를 살펴보면, 먼저 구천(九天)은 최고위(最高位)를 뜻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나타내며, 응원(應元)은 제1원인자 또는 만물의 근원자임을 뜻한다. 뇌성(雷聲)은 만물을 주재(主宰) 자양(滋養)하는 전능자로서의 능력 그 자체를 뜻하며, 보화(普化)는 창조주로서의 권능(權能)이 세계 속에 이미 드러나 있음을 나타낸다. 천존은 곧 절대지존(至尊)을 뜻하며, 강성상제(姜聖上帝)란 역사적 인격과 절대자로서의 신격을 일치시켜 본다는 것이다.¹⁰⁾

신앙의 대상은 언제나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인 만큼 각별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순신앙의 대상에 관한 연구는 모든 종교경험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궁극적 실재에 관한 문제로서 일단 인격적이고 일원적인 속성을 지닌 구천상제를 정점으로 한 가치체계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족의 전통신앙에 있어서의 계승적인 부분과 접목하여 한국적 유일신앙을 재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리라 본다.¹¹⁾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증산의 신격에 따른 호칭을 창조적으로 부연 해석

9) 《전경》, 공사 1장 2절.

10)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진리회 요람》, 6-7쪽 참조.

11) 唯一에 대한 의미는 다수와 상대되는 산술개념으로서의 일(一)과는 달리 본다.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민족의 종교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궁극적인 것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하겠다. 마치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논의되는 본질적 진리वाद도 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일의 의미는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보편적인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김경재 교수의 《이름 없는 하느님》(삼인, 2002)에서 본격비판을 시도한 바 있다.

해 나감으로써 그 신앙고백의 성스러움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이어서 신앙의 대상인 상제가 최고신의 능력을 지니고 행한 위대한 역사를 통해 대순신앙의 대상이 지닌 속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여야 하리라 본다. 예를 들면 구천상제를 권능자, 예지자, 약속자, 천하광구자 등으로서 규정지은 바 있듯이,¹²⁾ 보편적 의미의 유일신 속성과 특수한 현현으로서의 대순(大巡)상제(上帝)를 적절히 조화하여 신관(神觀)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앙대상은 한층 드높은 위상을 지니고 신앙인에게 참된 종교경험을 가능하게 하리라 본다.

2. 종지(宗旨)

종지란 그 종파의 핵심적인 교의를 뜻하는 단어로서 대순진리회 종단에 있어서는 모든 사상적인 측면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다. 총 네 부분 16자로 이루어진 종지는 각각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으로 명시되어 있다. 도주의 무극도 종단 창설 시에 처음으로 공표되었던 이러한 종지의 내용은 오늘날의 대순진리회가 여타 종단과 차별화될 수 있는 이념적 가치를 다분히 보여준다 하겠다.

본 종단에서 주창하는바 종지의 교리사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도주 조정산 사상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도주의 위격은 신앙체계에 있어서 구천상제로부터 종통을 세우신 분으로 알려져 있다.¹³⁾ 《대순지침》에서는 또한 “도주님께서 진주(眞主:15세)로 봉천명(奉天命)하시고 23세시에 득도하심은 태을주(太乙呪)로 본령합리(本領合理)를 이룬 것이며, 《전경》에 12월 26일 재생신(再生身)은 12월 4일로서 1년 윤회의 만도(滿度)를 채우실 도주님의 탄생을 뜻하심이다”라고 하고 “본 도의 연원(淵源)은 상제님의 계시(봉서)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부터 이어내려 왔다”고 하여 도주 조정산이 구천상제의 종통계승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⁴⁾ 이 때 종지는 종통계승자가 최초로 밝힌 구천상제 사상의 요체(要諦)를 나타낸 것에 다름 아니다. 구천상제가 인세(人世)에서 행하신 9년간의 대역사를 놓고 그 역사가 지향하는 바의 이념적 총체를 도주가 새롭게 규정함으로서 비로소 구천상제의 위대함과 그 역사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구천상제의 위대한 역사는 주로 9년간에 걸친 천지공사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상적 개요는 바로 도주가 확립한 종지에 의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즉

12)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7, 68-75쪽 참조.

13) 《대순지침》에 따르면 「구천상제(九天上帝)님의 계시를 받으신 도주(道主)님께서 종통을 세우셨다」(13쪽)라고 하였다.

14) 위의 책, 13-14쪽.

천지공사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또한 천지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종지의 이념이 주된 원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천지공사의 대체(大體)는 모두 이러한 종지의 내용 속에서 포섭될 수 있으며, 종지는 또한 천지공사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¹⁵⁾

종지와 천지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음양합덕에서는 일음일양(一陰一陽)과 정음정양(正陰正陽) 그리고 음양조화(陰陽調和) 등에 관한 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¹⁶⁾ 신인조화는 인존(人尊), 신도(神道)와 인사(人事), 강륜(綱倫) 등에 관한 공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¹⁷⁾ 해원상생은 인간사회와 신명세계 그리고 천지 만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진 해원공사와 함께 상생의 도로 후천선경을 건설하고자 한 상제의 의지에서 확인되고 있다.¹⁸⁾ 도통진경은 후천선경과 도통군자, 지기통일, 문명통일 등의 공사에서 일찍이 표방된 바 있다.¹⁹⁾ 이처럼 종지는 대순사상 연구의 출발점이며 귀결점으로서 확고부동한 교의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대순사상이 하나의 종교사상으로서의 구조를 지닌다 할 때 그 사상적 범주로서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이해될 수 있다. 신관, 인간관, 세계관 등이 그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모두 종교적 사고에 있어서 중심적인 주제들이다. 신과 세계, 그리고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들은 매우 중요하다.²⁰⁾ 이러한 주제들에 관해서도 대순사상에서는 모두 종지에 의해서 압축되고 표방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철학 종교 윤리 사회와 같은 인간행동에 관한 주제에 있어서도 그 주된 사상적 요체는 모두 종지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음양합덕에서의 음양론은 동양철학의 전통에서 발견되어지는 주된 주제이며, 신인조화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론은 종교경험의 본질을 이루는 부분이다. 해원상생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실천과 윤리의 문제를 내함(內涵) 하고 있으며, 도통진경은 이상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로써 볼 때 종지는 대순진리회 종단이 표방하는 모든 사상적 총체를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연구 또한 다양한 시각과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다.

기존의 종단체제 내에서는 아직 종지에 대한 공식적인 해설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종지가 함축하고 있는 바가 워낙 무궁무진하므로 오히려 거기에 해설을 붙임으로 해서 종지의 본래적인 가치를 격감시킬 우려가 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을 교화하고 그 사상적 가치를 알리는데 있어서는 부연해설이

15) 이경원 외,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대순사상학술원, 2000, 97-114쪽 참조.

16) 《진경》, 공사2장 16절.

17) 《진경》, 교법 2장 56절, 예시 9절, 교법 3장 34절.

18) 《진경》, 공사 1장 3절.

19) 《진경》, 공사 3장 5절, 예시 12절, 예시 45절.

20) 요아힘바하, 김종서 역, 《비교종교학》, 민음사, 1988, 143쪽.

불가피하므로 이는 학자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연구로써 종지의 사상적 가치를 밝히고 해석해 나가는 작업은 종지에 대한 신념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신조(信條)

하나의 종교에 있어서 신조는 신앙대상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할 때 이어지는 신앙고백적 성격의 교리를 말한다. 대순진리회 신조는 먼저 신앙대상이 되는 구원상제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나아가 강세하신 상제의 대역사인 천지공사에 순응하여 그 신앙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신조는 종단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수도인 전체의 결속을 가져다주고 구성원 개개인의 내적 생활과 외적 대응을 위한 공적 표준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종단 내에서 신조는 크게 사강령(四綱領: 안심·안신·경천·수도)과 삼요체(三要諦: 성·경·신)로 구성되어 있다. 두 부분은 모두가 하나의 신조에 속하는 것이지만 ‘강령’과 ‘요체’가 가져다주는 어감에 따라 서로 구분되고 있다. 사강령에서 강령은 주로 집단행동의 정체성을 이끄는 규범으로 기능한다고 보며, 삼요체에서의 요체는 개인이 사리(事理)를 분별하고 모든 행동에 있어 하나의 원리가 되는 것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사강령·삼요체 모두 하나의 신조 속에 놓고 보면 개인과 집단에 고루 적용될 수 있는 교리규범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강령에서 ‘안심(安心)’에 관한 공식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행동(行動) 기능(機能)을 주관(主管)함은 마음이니 편벽(偏辟)됨이 없고 사사(私邪)됨이 없이 진실(眞實)하고 순결(純潔)한 본연(本然)의 양심(良心)으로 돌아가서 허무(虛無)한 남의 피임에 움직이지 말고 당치 않는 허욕(虛慾)에 정신(精神)과 마음을 팔리지 말고 기대(企待)하는 바의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도록 항상(恒常) 마음을 안정(安定)케 한다.»²¹⁾ 여기서 안심에 관한 직역은 결국 ‘마음을 안정케 하는 것’이며, 그 마음이란 언제나 상제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것임을 말하고 있다. 안신(安身)에 있어서는 「마음의 현상(現象)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니 모든 행동(行動)을 법례(法禮)에 합당케 하며 도리(道理)에 알맞게 하고 의리(義理)와 예법(禮法)에 맞지 않는 허영(虛榮)에 함부로 행동(行動)하지 말아야 한다.»²²⁾라고 하여 심신(心身)일여(一如)의 경지에서 모든 신앙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경천(敬天)은 「모든 행동(行動)에 조심하여 상제님(上帝任)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恒常) 상제(上帝)께서 가까이

21)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진리회 요람》, 15쪽.

22) 같은 글.

계심을 마음속에 새겨 두고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여 신앙대상이신 상제의 존재를 언제나 외경(畏敬)하는 자세를 견지해나갈 것을 말한다. 수도(修道)에 대해서는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上帝任)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精神)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生覺)하여 끊임 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부(工夫)와 수련(修練) 기도(祈禱) 등이 그 주요한 행위가 된다.²³⁾ 이러한 활동이 꾸준히 반복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신심(信心)을 돈독히 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사된 유희와 생활을 막아내는 방패로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삼요체의 공식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성(誠)은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境地)에서 심령(心靈)을 통일(統一)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할지니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主管)하며 전체(全體)를 통솔(統率) 이용(理用)하나니, 그러므로 일신(一身)을 생각하고 염려(念慮)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調密)(조밀)하고 틈과 쉽이 없이 오직 부족(不足)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룬다.」²⁴⁾고 하였다. 경(敬)에 대해서는 「경(敬)은 심신(心身)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一身上) 예의(禮儀)에 알맞게 행(行)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敬)이라 한다.」²⁵⁾고 하였으며, 신(信)에 대해서는 「한마음을 정(定)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偏辟)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變)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않고 셋을 셋이라 않고 저것을 이것이라 않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精誠)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²⁶⁾ 이 세 가지는 모두 수도인이라면 신앙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고루 갖추어 나가야만 하는 마음과 몸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신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대순진리회 신앙생활의 특징인 수도(修道)활동에서의 순일(純一)함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요건이 되기 때문이

23) 같은 글.

24) 위의 책, 16쪽.

25) 같은 글.

26) 위의 책, 17쪽.

다. 일찍이 상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²⁷⁾고 하고,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²⁸⁾고 하여 변함없는 믿음을 강조한 바 있다. 수도과정에 있어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샅된 유혹에 현혹되지 않으며 언제나 정직과 진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신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도 어느 순간에 과오에 빠지거나 부패해지는 경우가 있다. 대순진리회 수도인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이러한 신조를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서 과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신조에 관한 연구는 종지에 관한 연구와는 성격이 달라서 어떤 사상적인 측면보다는 하나의 규범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종단의 구성원을 결속하고 그 집단의 정체성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지니는 대 사회적 가치와 내면성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신앙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적인 감화에 힘입어 수도인 본래의 사명과 목적 달성에 있어 이러한 신조에 관한 이해는 종지에 못지않은 하나의 궤적을 그리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4. 목적

대순진리회 교리체계에 있어서 ‘목적’이라는 항목이 차지하는 의의는 종교적 교의에 의해 결정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종교의 영역에서 규정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존재(Homo Religious)이며, 그러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길은 그가 지닌 종교성을 세계 속에 완벽히 실현하는 데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 스스로의 존재를 보다 나은 모습으로 재구성하거나 세계와 신(神)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모든 장애를 극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의 종교들에서 발견되는 여러 지배적인 개념들은 이러한 종교적 목적의식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불교에서 일컫는 ‘해탈(解脫)’이라든지 유교에서의 ‘인(仁)’, 기독교내에서의 ‘구원(救援)’ 등은 모두가 그 종교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담고 있는 용어로서 공동체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단어들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전통으로서의 문화적 틀을 동반하고 있지만 다같이 어떤 궁극적인 것에 대한 신앙적 관심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인간 내적인 지향성을 전제하는 것이다.²⁹⁾ 그 종교의 ‘목적’이

27) 《진경》, 교법 1장 5절.

28) 《진경》, 행록 5장 19절.

29) W.C.Smith는 그의 인격주의적 종교이해에 있어서 기성의 종교를 사람들의 살아있는 신앙(faith)과 그 신앙이 발생하는 축적적인 전통(cumulative tradition)으로 구별하여 이해한 바 있다. 축적적인 전통은 특정 종교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생활이 역사적으로 표현되어 왔고

라함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지향성 하에서 설정되는 가치개념을 의미한다.

대순진리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적에 관한 사항은 그 신앙의 고유한 틀 내에서 표현된 궁극적인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나온 대순진리회 신앙의 축적적인 전통을 나타내면서 다른 종교들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구원에 해당하는 개념이기도 하다.³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는 무자기(無自欺)-정신개벽(精神開闢)이며, 둘째는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인간개조(人間改造), 셋째는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세계개벽(世界開闢)이다. 서로의 항목 간에는 그 유기적인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대순진리회 종교목적은 굳이 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사상과 같이 인간을 포함한 광활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첫째 항목은 한 인간의 내적인 주체가 되는 정신의 문제를 놓고 이를 어떤 경지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제시한다. 육체 또한 인간을 이루는 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인간의 본질은 정신이라는 점에서 그 전통적 가치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둘째항목은 이 세계의 한 가지 현상으로 존재하는 인간에 관한 총체적인 가치실현의 문제이다. 한 인간을 구성하는 이른바 정신과 육체는 그 본질이 되는 정신의 개벽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그 육체적 현실마저도 개선된 이상적 경지를 나타낸다. 최소한 인간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 내에서는 인간 자신의 유한성(有限性)을 극복하고 인격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설정이다. 셋째 항목에서는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즉 세계의 이상적 경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신앙의 목적이 전 우주적으로 달성된 상태를 나타낸다.

이상의 세 가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때 단계적으로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인간과 세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달성하는 전 우주적인 구원관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신앙의 대상은 그 자체로 궁극적 실재이면서 하나의 신앙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 신앙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지와 신조는 그 종교의 고유한 지적(知的) 전통을 이룬다. 여기에 '목적'은 신앙인의 실천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나아가 모든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궁극적인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것으로 교리체계 내의 역할을 삼을 수 있다. 대순진리회 교리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

또 표현되고 있는 하나의 문화적 틀을 말한다. 이는 개별 종교들이 서로를 구별 짓는데 흔히 사용되는 내용들이다. 이에 반해 '신앙'이란 개인이나 혹은 여러 개인들이 지닌 신적인 초월성(여기에는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을 다 포함한다)과의 관계로 봄으로써 종교 전체의 영역 안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역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데 의의가 부여된다. (W.C.Smith, 김희성 역, 《종교의 의미와 목적》, 분도출판사, 1991, 17-18쪽 참조)

30) 구원이라는 개념은 주로 그리스도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지만 어느 종교든 그것에 해당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구원은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적이다.(김희성,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민음사, 1994, 20쪽)

에 관한 개념정립과 해석은 종지와 신조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만큼이나 대등한 비중으로 지속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교리개요의 사상적 특징

대순진리회 교리개요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상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종지에서 제시한 내용이나 신조 목적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모두가 창도주의 고유한 종교체험을 담고 있으면서 그 시대의 언어로 표현된 가치지향적인 이념을 나타낸다. 오늘날 교리개요에 관한 이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상적 특징을 먼저 살펴봄으로서 이론적 기초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를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창도주 고유의 종교체험 및 지적표현

대순진리회 교리개요의 확립은 주지하다시피 창도주인 조정산의 종교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종단의 연혁에 따르면 창도주는 15세에 부조전래(父祖傳來)의 배일사상(排日思想)을 품고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하여 구국(救國)운동에 활약하다가 도력(道力)으로 구국제세(救國濟世)할 뜻을 정하고 입산수도하던 중 23세시에 대순진리에 감오(感悟)득도(得道)하였다. 도주는 종통계승의 계시를 받고 망명 9년 만에 귀국하여 전국각지를 편력 수도하시다가 1925년에 전북 구태인 도창현(道昌峴)에 도장을 세우고 종단 무극도를 창도하게 되었다.³¹⁾ 이 때 공식적으로 공표된 교리가 바로 오늘날 대순진리회 종단 교리의 골격을 이룬다.

하나의 종교 내에서 일컬어지는 교리는 기본적으로 교조의 종교체험에 대한 지적 표현의 내용을 담는다 할 때 위에서 본 도주(道主)의 교리 공표과정에는 그 고유한 체험의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신앙대상의 발견과 진리에 대한 자각 그리고 도주의 전인적인 반응과 종교행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이후 교리생성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종단 교리개요의 내용에는 이러한 도주의 고유한 종교체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하겠다. 그 일련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주가 발견한 신앙대상은 전지전능한 최고신이면서 인세강림을 행한 역사적 존재이다. 도주께서는 구세제민의 염원 하에 공부하던 중 한 신인(神人)으로부터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

31) 《대순진리회 요람》, 11-12쪽 참조.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의 글을 받았으며, 밤낮으로 그 주문을 송독하는 과정에서 마침내 상제로부터 중통계승의 계시를 받게 되었다.³²⁾ 이후 도주는 ‘조선으로 귀국할 것’과 ‘김제 원평에 갈 것’ 등의 계시와 함께 상제의 누이동생인 선돌부인으로부터 유일한 봉서까지 받음으로서 역사적으로 강림한 상제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다. 도주가 밝힌 상제의 위격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상제’로서 이는 곧 천지만물을 지배자양(支配滋養)하는 최고신격을 뜻하고 있다. 도주는 중도들에게 설명하기를 “... 하늘은 삼십 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 보화 천존 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³³⁾고 하여 이러한 신격을 교리체계에 있어 신앙대상으로 설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 종단의 요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앙의 대상은 이 호칭을 중심으로 최고신격의 가치를 해설하고 있다.

도주의 종교체험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신앙대상인 상제와의 교감을 통해 전인적인 반응을 하고 참된 진리에 대한 자각을 갖는 점이다. 만주 봉천에서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³⁴⁾는 명을 받고 귀국한 도주는 원평을 거쳐 구릿골 약방에 이르면서 9년동안 이룩한 상제의 공사를 밟았으며, 모악산 대원사에 머무르며 개벽 후 후천 5만년의 도수를 비로소 펼치게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후 통사동(通士洞) 재실에서 밤낮으로 공부하던 도주는 상제의 대순진리가 ‘금불문고불문(今不聞古不聞)’의 도(道)로서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解冤相生)대도(大道)임을 밝혔다.³⁵⁾ 도주는 또한 자신의 공부를 ‘요순우왕일체동(堯舜禹王一切同)’에 비유하였으며,³⁶⁾ 전교(傳敎)와 각도문(覺道文)을 통해 진리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제시하였다.³⁷⁾ 여기에 도주의 종교체험은 곧 종단창설로 이어지며 그 고유한 진리체계를 확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종지와 신조 목적 등은 이 과정에서 정립된 도주 종교체험의 지적표현에 해당한다 하겠다.

세 번째로 도주가 세운 교리개요는 도주 자신의 종교체험이 행위를 통해 심화되어 나간 결과라는 점이다. 처음 조선에 귀국한 도주는 안면도에 머무르면서

32) 이하는 《진경》 교운 2장의 내용을 참조함.

33) 《진경》, 교운 2장 55절.

34) 《진경》, 교운 2장 8절.

35) 《진경》, 교운 2장 18절.

36) 《진경》, 교운 2장 23절.

37) 특히 각도문(覺道文)에 나타난 도주의 사상은 심학(心學)적 기반 하에 상제로부터의 중통계승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성인(聖人)의 심법(心法)을 깨닫는 것이고 성인(聖人)의 진실(眞實)을 깨닫는 것’이라서 도주는 그러한 심법과 진실을 깨달은 자로서 상제의 가르침을 받들고 대도(大道)와 대덕(大德) 대업(大業)을 이어나가는 것임을 밝혔다.(교운 2장 33절 참조)

우일재(宇一齋)를 마련하여 공부하였으며, 대원사, 통사동 재실, 부안 변산의 굴바위 등지에서 공부를 계속하며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법하였다. 이 과정에서 도주는 납월도수·북현무도수·둔도수·단도수 폐백도수를 겪으면서 마침내 무극도를 창도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도주가 세웠던 교리는 이와 같은 수많은 도수(度數) 속에서 확립된 것이라 하겠다.³⁸⁾ 도주는 종단창설과 더불어 교리개요를 확정함으로써 상제의 대순하신 진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식체계임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종단 교리개요의 사상적 특징에는 먼저 최초 종단을 창설한 도주의 종교체험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종교체험이 하나의 지식체계로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모든 교리가 생겨났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 전통적 사유의 비판적 계승 및 변용

대순진리회 교리개요의 사상적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종지와 신조 목적의 내용이 모두 그 자체로 전통적 사유를 비판 계승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이때 말하는 전통적 사유란 한국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국대륙과 연계된 동양사상의 전통을 일컫는다. 흔히 동양적인 사유는 크게 나누어 인도적인 것과 중국적인 것으로 양분되기도 하는데, 이 때 한국은 반도적인 환경요인을 안고 문화적인 말초지로서 주변적이면서 중심적인 특질을 발휘하였다고 본다.³⁹⁾ 주로 중국대륙을 통해 유입된 사유체계는 전통사상으로서 유·불·도(儒佛道) 삼교(三教)가 있었으며, 고유사상으로는 신화(神話)나 풍류도와 같은 사유체계가 존재하였음을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체계는 최고신 상제께서 강림한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한민족의 의식세계를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사상으로 등장한 대순진리의 교리적 표현에는 그 이전까지의 전통사상을 배경으로 비판 극복 변용(變容)

38) 도수(度數)라는 용어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의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이다. 고전에는 이 도수에 대해서 주로 制度나 節次, 回數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정립은 度數의 의미에 대해서 순서·절차 즉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李正立, 《대순철학》, 141쪽) 필자의 견해로는 하나의 절차개념을 포함하면서 특히 ‘어떠한 일을 완성하거나 이루는데 필요한 기간’을 뜻한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일의 시작과 끝이 되는 시점도 포함하고 있다. 구천상제께서 행한 도수의 종류에는 백의장군 백의군왕도수(행록3장54절), 고부도수, 독조사도수(행록3장65절), 해원도수(공사2장3절), 음양도수, 정음정양도수, 문왕도수, 이윤도수(공사2장16절), 해왕도수(공사3장 6절), 북도수(공사3장11절), 무당도수(공사3장33절), 상극도수(예시10절), 문수보살도수(예시19절), 선기육형도수, 갈고리도수, 끈도수, 추도수, 일월대어명도수, 천지대팔문도수(예시31절) 헛도수(예시53절)등이 있다.

39) 조지훈, 《한국문화사 서설》, 나남출판, 1996, 19-29쪽 참조.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먼저 신앙의 대상에 해당하는 정식 호칭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서 이는 공히 유·불·도 삼교의 영향 하에 전해온 최고 신격의 호칭을 표현한 것이다. “보화(普化)는 십왕(十王)제천(諸天)이요 천존(天尊)은 구천(九天)을 총괄하며 명령을 내리는 존령(尊靈)인데 보화천존(普化天尊)은 제천(諸天)의 왕이요 조화(造化)의 조(祖)다.”⁴⁰⁾라는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칭에는 불교와 도교의 최고 신격(神格)이 내포되어 있고, 또한 ‘상제’라는 명칭은 고대 유교의 인격적 최고신에 해당한다.⁴¹⁾ 이로써 불 때 신격에 대한 표현은 이미 전통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한 신격의 현현양상과 신앙대상으로의 봉안(奉安)과정에는 이미 창도주 고유의 종교체험이 반영되어 재정립되는 과정을 밝게 됨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최고신상제는 하나의 관념적 대상으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인간세상과 교류하고 보살피는 과정에서 한 인간으로 화신(化身)하면서 역사적인 존재로 임재(臨在)하는 신(神)이 된다. 창도주의 종교체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한 인간에게 선택적으로 계시를 내리는 신적 존재이면서 역사적 실체를 지닌 한 인물로서의 상제는 도주의 새로운 종교적 자각을 일깨웠던 것이다. 오늘날 현대종단의 교리에서는 그 신앙대상에 대한 호칭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격에다가 ‘강성상제(姜聖上帝)’의 호칭이 더해져서 최고신격으로서의 고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바로 역사적 인물로서의 강증산과 전통적인 최고신격의 대상을 일치시킴으로서 대순진리회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종지와 신조, 목적의 표현에서 보여지는 특성도 전통적 사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종지에 해당하는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은 각각 동양전통의 고전(古典)에 기초하여 그 개념을 유추해 나가야만 한다. 음양합덕은 기본적으로 《주역(周易)》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주역의 철학적 사고의 근간을 이루는 음양론(陰陽論)을 토대로 한다. 신인조화는 《서경(書經)》의 ‘신인이화(神人以和)’에서 엿볼 수 있는 신인관계론과 연관이 있으며, 해원상생에서의 해원은 무속(巫俗)을 연상시키고, 상생은 ‘노장(老莊)’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념이다. 도통진경에서의 도(道)는 동

40) 최병두 《佛敎要集》中, 세창서관 (김영진, 〈옥추보경 해제〉, 《옥추보경》, 민속원, 1쪽 재인용)

41) 《玉樞寶經》에 언급되어 있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신격에 대해서는 그 해제에 도교(道敎)의 최고신을 지칭한다고 하였으나, 그렇다고 이 경전을 순수한 도교경전으로만 보지는 않으며 불설(佛說)의 옷을 입은 도서(道書)로서 이미 불교사찰을 통해 배포되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판본은 1570년에 이미 간행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영조 9년(1736)에 보현사에서 완본(完本)이 개간되고 1838년에 다시 중간(重刊)한 것으로 기록된다. (김영진, 〈옥추보경해제〉, 《옥추보경》, 민속원, 1-7쪽 참조)

양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대명사로서 일컬어진다. 이상의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종지의 사상에는 전통적 가치관이 질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순진리의 고유성은 이를 무비판적으로 계승하기 보다는 자체의 신앙적 틀 내에서 창조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이를 새로운 개념으로 변용시키고 있다는데서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즉 종지는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서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의 이념이므로 전통사회에서 인식되어온 개념을 상제신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음양은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지만 진정한 합덕(合德)의 경지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못했다는 점, 신인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있어왔지만 그것을 조화(調化)라는 경지에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 이 때 조화는 조화(調和)와 조화(造化)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해원상생에 있어서도 이는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 전 우주적 범위에서 이해되어 져야 하며, 도통진경 또한 유·불·도가 통합된 대국적인 차원의 세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교리의 독창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한다.

신조에 있어서 사강령 삼요체 또한 유·불·도 삼교의 사상을 고루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본질은 상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신앙적 개념에서의 신조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삼요체에 나타난 성·경·신(誠敬信) 개념은 어떤 철학성을 논하기 이전에 철저히 신앙적 입장 하에서 설정된 교리임을 인식할 때 그 사상적 특질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목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표현은 유·불·도 삼교의 사상적 전통을 담고 있으며 심지어는 서학(西學)의 주제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조합된 내용을 또한 하나의 목적이라는 틀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신앙의 궁극성을 단계화한 것에 다름 아니며 이로써 그 표현에는 상제에 대한 신앙을 가시화하는데 그 본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순진리회 교리개요가 지니는 사상적 특징의 하나는 그 시대의 전통적 사유를 빌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본질에는 언제나 상제신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비판적 계승과 변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미래지향적 신사고(新思考)의 발휘

대순진리회 교리개요에서의 종지와 신조 목적은 그것이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지니고 현실을 초극하는 이론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사상적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즉 상제께서는 19세기 말에 강세(降世)하시어 20세기의 서장을 여는 시점에 바야흐로 천지공사(天地公事)를 이룩하시었는데, 이 역사는 10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우리 인류가 깨닫고 신봉(信奉)해 나가야만 하는 하나의 좌표로 주어지고 있다. 상제의 사상은 어떤 과거 전통사회에 대한 동경과 회

귀(回歸)의 관점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세계를 재편하고 나아가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신사고 또는 신 가치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⁴²⁾

상제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얻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⁴³⁾

라고 하여 천지공사의 독창성을 밝힌 바 있다. 이 때 천지공사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세계는 바로 ‘후천선경(後天仙境)’이라고 하는 이상낙원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는 오직 상제의 권능에 의해서 제작되고 주어지는 세계임을 뜻한다. 따라서 상제께서 공표한 진리는 한 시대에 국한된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없으며 타인의 사상을 계승하는 것도 아닌 유일한 가치를 지닌다. 현대종단에서 주창하고 있는 교리개요는 이러한 점에서 상제 강세이후의 변화되는 세계를 설명하고 또한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사고방식의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종지에 나타난 이념에서 살펴보면 먼저 ‘음양합덕’에서는 새로운 철학적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 동양전통의 음양론에서는 음양(陰陽)대대성(對待性)의 논리에 입각해서 세계를 설명하였다. 이는 음과 양의 관계성에서 출발하여 음·양의 두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 상반자(相反者)들의 균형 있는 조화성(調和性)을 지향한다. 음양합덕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음과 양이 그 덕을 합하여 무한한 새로움을 창조하게 되는 조화성(造化性)을 나타낸다. 이런 관점에서 음양합덕은 하나의 새로운 사고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신인조화에 나타난 이념은 하나의 새로운 종교적 가치관을 지향한다고 본다. 종교가 문제 삼고 있는 바는 바로 신

42) 동아시아적 사고를 대변하는 유교사상은 이런 점에서 대순사상과 대비된다. 유교창시의 중심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공자의 사상에는 근본적으로 고대사회에 대한 동경이 깃들여 있다. 《論語》〈述而篇〉에서 「子曰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이라고 하고, 《中庸》30장에서는 「仲尼 祖述堯舜 憲章文武 上律天時 下襲水土」, 28장에서는 「子曰 吾說夏禮 杞不足徵也 吾學殷禮 有宋 存焉 吾學周禮 今用之 吾從周」라고 하였다. 여기서 볼 때 공자는 유교사상을 자신의 순수한 창작으로 보지 않고 선왕(先王)의 사상을 조술(祖述)하였음을 밝혔으며, 아울러 그들의 치적을 통해서 그 인격과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다. (《유학원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2, 11-15쪽 참조)

43) 《진경》, 공사 1장 2절.

과 인간의 관계성이며 여기에 ‘조화(調和)’와 ‘造化(造化)’의 합성어인 ‘조화(調化)’라는 경지를 제시함으로써 신과 인간의 합일(合一)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관과 인간관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해원상생은 전 세계인류가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새로운 윤리적 이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누 천년간 쌓인 인간 상호간의 원한관계를 해소하고 나아가 상생의 이념으로 관계할 때 비로소 인류의 영원한 평화가 찾아 올 수 있다고 본다. 도통진경에서는 인류가 소망하는 이상사회상을 다룬다. 아직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낙원의 이상을 현실세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점에서 도통진경은 미래적 가치관을 담고 있다.

안심·안신·경천·수도, 성·경·신과 같은 신조는 종지에 나타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기능하며 나아가 미래의 이상을 현재화시켜주는 가치를 지닌다. 무자기·정신개벽,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에 나타난 목적의식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개벽이라는 극적인 단어로써 표현하고 있다. 정신의 개벽이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며, 인간개조에서는 미래에 탄생할 새로운 모습의 인간을 예비하며, 세계개벽은 후천선경의 건설을 통해 맞이하는 미래 이상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종지와 신조, 목적의 교리개요는 그 자체로 미래적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실천적인 요소 또한 담고 있다 하겠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대순진리회 교리에 나타난 체계와 그 사상적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하나의 종교가 발생하여 인간사회의 문화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경험의 지적인 표현으로 파악되는 이 교리는 모든 종교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어떠한 실천도 정신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길 수 없는 것처럼 보다 진실하고 희생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종교계에서는 그 교리에 대한 이해와 신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순진리회 교리에 나타난 체계성과 그 사상적 특징은 창도주의 탁월한 안목과 체험으로 표현된 것인 만큼 그 연원(淵源)을 받드는 현대종단에서는 보다 각별한 이해가 요구된다. 현대사회가 당면한 문제의식을 교리적 내용에 입각하여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교리연구에 대한 관심을 고조하고 새로운 문화 창달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수도인들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 《典經》, 대순진리회 교무부 발간.
《大巡眞理會 要覽》
《대순지침》
《종단 대순진리회》 화보집.
《四書大全》
《玉樞寶經》 민속원.
W.C.Smith, 김희성 역, 《종교의 의미와 목적》, 분도출판사, 1991.
교재편찬위원회, 《불교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1997.
교재편찬위원회, 《유학원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2.
김희성, 《포스트모던 사회와 열린 종교》, 민음사, 1994.
김경재, 《이름없는 하느님》, 삼인, 2002.
김성례 외, 《한국종교문화연구100년》, 청년사, 1999.
요아힘바하, 김종서 역, 《비교종교학》, 민음사, 1988.
이경원 외,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대순사상학술원, 2000.
이정립, 《대순철학》, 대법사편집국, 1947.
장병길, 《대순종교사상》, 대순종교문화연구소, 1987.
조지훈, 《한국문화사 서설》, 나남출판, 1996.
한국신종교학회, 《신종교연구》, 1999 1집-2003 8집.
한국종교학회 편, 《해방후 50년 한국종교연구사》, 창, 1997.